

봉선·말바우·양동시장, 문화관광·지역선도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5개 선정 국비 91억 확보

지역 문화와 연계·특화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광주 봉선·말바우·양동시장이 지역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과 지역을 선도하는 대표시장으로 각각 탈바꿈한다.

광주지역 전통시장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국비와 시비 등 총 154억원이 투입되기로 결정되면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대적인 투자 결정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반기는 분위기가.

광주시는 9일 전통시장 활성화 정부 공

모사업에 5개가 선정돼 9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공모사업과 지원규모는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지역선도 시장 육성사업(양동시장, 12억5000만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말바우시장·봉선시장, 17억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양동수산물시장·운암시장, 5억20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대인·양동·봉선·말바우·1913송정역 시장, 36억여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한 '2017년 생활권 선도사업(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 19억6000만원)'이다.

광주시는 국비 91억원에 시비 64억원 더해 총 154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구의 경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봉선시장을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과 연계해 고객 유치 전략을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된 상태다. 상인들을 상대로는 마케팅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봉선시장만의 특화상품도 개발한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대인시장, 양동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1913송정역시장, 지산유원지, 자동차의 거리는 공용주차장 건립, 주차장 개·보수 등 주차환경 개선으로 시장 진출이 편리해지고 불법 주차에 따른 교통 혼잡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동복개사가 손중호 상인회장은 "양

동시장은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해 이를 집중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상인들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말바우시장 상인회 정종록 회장은 "말바우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점과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잘 접목해 다양한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정현 광주시장장은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전통시장이 활기가 넘치도록 광주시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 3기 출범 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내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3기 출범기념행사에서 민형배 협의회장(광산구청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범 선언문을 낭독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경제 주체로 육성”

광주서 35개 지자체 결성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 출범

3기 회장에 민형배 구청장

전국 35개 자치단체가 결성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가 광주에서 협동조합, 사회적·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주류경제의 대안으로 격상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압축성장이 만든 양극화의 절벽에서 추락하는 국민의 삶의 질과 인구감소, 고령화로 위협 받는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경제 시스템으로 회복하겠다는 게 지방정부협의회 목표다.

서울 성북구, 경기도 시흥시, 광주 광산구 등 전국 35개 지자체가 결성한 지방정

부협의회는 9일 오후 3시 광주시에서 3기 출범식을 가졌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 출범식에 참가한 350여명은 3기 회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을 중심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5대 과제 실천도 결의했다. 지자체 주요 정책 의제로 사회적 경제 추진, 법과 제도 개선, 사회적 경제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시민사회와의 협업, 해외 사회적 경제 주체와 연대를 내놨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앞으로 자치단체들이 연대를 이뤄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

정,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자생력 확보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보육, 교육, 돌봄, 식량, 에너지, 주거, 보건, 문화예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재를 지역과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3기 체제에서는 회원 지자체 서비스 중 전략 분야를 선정해 공공서비스 공급자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 규모를 키우는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고, 각 지

전남도, 오늘 순천대서

강소기업·산업요원 채용박람회

전남도는 10일 오후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광주전남 지방병무청과 함께 '2017 전남 동부권 강소기업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채용박람회는 전남 동부권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특성화고, 기술사관학교 졸업 예정자 등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일반 채용 또는 산업기능요원 채용 기업 92개사와 특성화고 10개교, 기술사관 2개교 졸업 예정자 등 일반 구직자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기업·학교·구직자 간 현장 채용상담과 면접을 통해 일반 채용은 물론 산업기능요원 채용까지 이뤄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자체가 지역 경계를 넘어 사회적 경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재화를 일정량 이상 구매하는 의무공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진대회를 열어 '스타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육성할 계획이다.

3기 회장을 맡은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새로운 나라"가 출범하기 하루 전, 그리고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죽음으로 향했던 자리에서 지방정부협의회가 나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결의했다"며 "앞으로 촛불 시민과 5월 광주 영령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한 길을 개척하겠다"며, 특히 강자독식의 정글자본주의를 해체하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대안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광주시 민간 위탁사업 관리·감독 강화

위탁사무 선정기준 규정

임택 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정

민간에 위탁한 각종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임택(더민주·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수탁기관 운영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과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심의하고, 모든 수탁기관이 의무적으로 매년 결산서를 작성해 외부기관 감사

사의회의 감사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동의·보고 사항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시는 136개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64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제도의 미흡으로 수탁기관과의 유착관계, 수탁기관의 자체 정산 및 사업비 부담집중 등이 지적받았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연 1회 이상의 감사조차 하지 않는 민간위탁 사업이 많은 데다 사업별 정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사무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사례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며 개정된 민간위탁 사업 절차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남도여행 으뜸상품' 본격 운영

남도별미·섬 등 10개 주제 60개 지정

전남도가 봄철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맞아 10일 서울에서 출발하는 '남도 식도 여행 3일' 단체 여행상품을 시작으로 '남도여행 으뜸상품'을 본격 운영한다.

'남도여행 으뜸상품'은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1박 2일 이상 체류하고 숙박하는 여행상품을 공모해 선정된 것으로, 남도의 맛과 문화, 경관자원 등으로 꾸렸다.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힐링여행, 남도별미, 섬 등 10개 주제에 공모를 실시, 154건의 여행상품 가운데 심사를 거쳐 60개 상품을 지정했다.

지정된 '남도여행 으뜸상품'에는 운영 실적에 따라 차량 임차비 일부가 지원된다. 전남도는 연간 1만4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으뜸상품을 이용해 전남을 방문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재영 전남도 관광과장은 "사드 사태로 중국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전남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으뜸상품 운영을 통해 국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 전남 관광객 5000만명 시대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남도여행 으뜸상품' 내역 및 운영 여행사는 남도여행 길잡이 누리집(www.namdo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여행상품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해당 운영 여행사에 문의해 이용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지사 중국 방문 ... 육아산업 시장 진출 모색

이낙연 전남지사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육아산업 시장 진출 방안을 찾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도내 기업인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

이 지사는 11~12일 중국 윈난성(雲南省) 쿤밍시(昆明市)에서 열리는 제4회 Pan-Asia 육아산업박람회를 참관하기 위해 10일 저녁 출국한다.

이 지사의 이번 방문에는 유아용 식품을 생산하는 전남지역 3개 업체가 동행한다.

이들은 박람회를 참관하고, 현지 유통업체를 조사하는 등 중국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중국의 육아산업(영유아 상품 및 서비스) 규모는 두 자릿수 정면 시흥과

소속수준 향상으로 매년 15% 이상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어 2018년에는 약 5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아용 식품류를 제외한 전남지역 기업의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